

조계종 교육원 연수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



조계종 교육원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단이 9월 1일 투르판의 베제크릭 석굴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



둔황 막고굴에서 위령재를 봉행한 이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이 추모 리본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前 포교원장 혜종 스님이 풍등을 날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천년 구법의 길에 서니 곳곳이 불국정토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실크로드. 말 그대로 당시 중국의 특산품인 비단을 교류하기 위한 상업루트였지만 이 길을 통해 많은 구법승들은 부처님 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다.

구법승이 실크로드의 시작인 중국 서안(옛 장안)에서 인도까지 가기 위해 걸린 시간은 대략 6년. 지금은 서안과 키르기스스탄까지 5500km의 고속도로가 놓였지만 옛 구법의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실제 문헌에 따르면 740명의 구법승들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고, 생활해 돌아온 구법승은 63명,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오로지 신실한 구법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전하기 위해 옛 선지식이 걸었던 '구법의 길' 실크로드. 이 길 위에 후학들이 한국의 조계종 스님들이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개최한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를 위해서다.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순례에는 종단의 명망 높은 스님들이 함께 했다. 지도법사로는 이례적으로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참여했으며, 순례단에는 前 포교원장 혜종 스님,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과 비구·비구니 스님 70여 명이 동참했다.



서안 법문사의 불자들의 신행활동 모습.

"옛 선현의 구법 정신 배우자"

순례단은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서안(西安, 옛 장안)의 법문사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부처님 지골사리가 발견된 것으로 유명한 서안 법문사는 대륙적 대찰의 면모를 보여준다. 끊임없이 개보수와 증축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나서 불교와 유교를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졌던 진신보탑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순례단은 이번 순례를 통해 옛 구법승으로 발자취와 정신을 되새길 것을 다짐했다.

설정 스님은 "실크로드를 통해 많은 구법승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면서 "이중에는 (왕오전축국전)을 쓴 혜초 스님도 있다. 옛 선지식들이 걸었던 이 힘의 일부를 후학인 우리가 일부 순례하고 그 발자취를 돌아보려 한다"고 순례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례가 옛 스님들의 발자취와 향훈을 돌아보고 '위법망구'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연과 大佛의 조화, 감탄만이

입재식을 마친 순례단은 본격적인 실크로드 탐방을 이어갔다. 차로 8시간을 달려 천수에 도착한 순례단이 찾은 곳은 맥적산 석굴. 중국의 4대 석굴 중 하나인 맥적산 석굴은 깎아지른 듯 한 산 절벽 곳곳에 석굴과 부처님 상이 조성돼 있다. 석굴은 동서로 두 부분으로 나뉘며 현존하는 것은 194개다. 동쪽 54굴은 대형 석굴 위주로 대부분 늦은 시기에 조성됐고, 140개 석굴은 상대적으로 조성 시기가 이르다.

석굴에 봉안된 불보살상만 7200여 구이고 이들은 대부분은 돌을 깎아 형태를 만들고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채색한 '석태니소(石胎泥塑)' 형식으로 조성됐다. 벽화는 1000㎡에 이르며 본생도(本生圖)와 서방정토변상도와 같은 벽화가 그려졌다.

답사에 동참한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는 "맥적산 석굴의 불상은 북위시대 조성된 '수불형상' 형식부터 당나라 시대까지 이어지는 불상을 변화를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교수는 한국 마애불에서 사라져 복원되지 않고 있는 예불 공간인 '전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유 교수는 "서안마애삼존불 등 마애불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불을 위한 공간인 전실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이 같은 전실을 복원하고 있지 않다. 전실이 복원돼야 전국에 산재된 마애불들은 단순한 문화재를 넘어 예경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난주에서는 병령사 석굴을 답사했다. 현재 병령사 석굴로 가기 위해서는 40여 분을 배로 이동해야 한다. 이곳에 법이 건설됐기 때문이다. 병령사가 개작된 난주 용정현은 서쪽으로 하서지역, 동쪽으로는 서안이 이어져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그 옛날 스님과 상인들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 여행길에 올랐다.

8월 27일~9월 3일 중일원서 진행

지도법사 설정 스님 등 80명 참여

동·서양문명 교류 현장 실크로드서

옛 구법승의 '위법망구' 정신 배워

맥적산·병령사 석굴 위용에 감탄만이

둔황 보존위한 중국 노력 '반면교사'

베제크릭 석굴서 탐욕·무지 폐해 절감

탐욕과 무지의 폐해의 현장에서

〈서유기〉의 화염산으로도 유명한 투르판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절감했다.

화염산을 넘어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베제크릭 석굴.

'아름답게 장식된 집'이라는 의미의 석굴이지만 안에 들어서면 불상은 없고, 불화는 뜯겨나갔다. 그나마 잔존 불화는 진흙칠이 돼 있거나 불보살의 상호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석굴의 불상과 불화가 훼손된 것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도굴과 이슬람 교도들의 훼손이 주요 요인이다. 독일의 그룬베멜, 르륵, 일본의 오오타니, 러시아의 올젠버그, 영국의 스타인 등이 차례로 드나들며 벽화와 불상을 마구잡이로 절취했다. 오오타니의 경우 이 벽화들은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으나 일제 패망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베제크릭 석굴 벽화 4점이 소장돼 있다.

남아있는 벽화를 답사하니 불화가 매우 한국적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광배의 화염 문양과 측면을 보고 있는 보살의 상호 등은 한국의 불화와 비슷했다. 유근자 교수는 "베제크릭 석굴은 축조 석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토함산 석굴의 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탐욕과 무지의 폐해 현장에서 순례단은 예불을 올리고 참선을 했다. 이를 통해 선지식들의 구법 열정을 다시 되새겼다.

참선 마친 이후 설정 스님은 순례 대중에게 설법을 했다. 설법 도중 스님은 훼손된 불상에 복원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설정 스님은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절감했다. 서구 열강의 탐욕으로 벽화는 뜯겨지고 이슬람의 무지로 불화는 훼손됐다"면서 "집착과 탐욕의 신앙인과 일반인들을 우리는 깨닫게 해야 한다. 깨닫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더욱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우리는 길 위의 수행자"

순례단은 마지막 여정인 우루무치에서 천산 천지를 찾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7박 8일의 여정에서 순례단 스님들은 옛 선지식들의 구법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육천암 주지 정경 스님은 "서산 마애삼존불의 원류가 있다고 해서 답사에 참가했다. 이번 순례에서 이를 확인하고 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청암사 승가대학 도반들과 참석한 대전보훈병원 병당 주지 선명 스님은 "내 자신을 가다듬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모습과 시대는 다르지만 혜초, 현장 스님과 같은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원에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방에서 수행 중인 선우 스님은 길 위에 있는 것이 곧 수행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선우 스님은 "2004년 5대 적멸보궁을 도보 탁발 순례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길 위에 있는 것이 곧 스님의 삶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시의 결심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신성민 기자

하는 곳으로 막고굴의 유명 석굴들을 3D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순례단 역시 미리 예약을 해 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돛 형식의 화면에 막고굴의 전실이 투영되고 불보살상은 사방을 돌며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어도 더빙되어 쉽게 이해하게 했다. 이는 관람 일반도의 한국불교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부분이다.

막고굴 천불동 석굴들은 벽화도 많은 가치를 가진다. 그와 함께 그 위용도 눈길을 끌었다. 막고굴의 동굴을 전부 이르면 1618m가 되며, 벽화의 면을 합치면 25,000㎡에 이른다.

30년 전 막고굴을 찾은 적이 있는 지도법사 설정 스님은 둔황 석굴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노력에 감탄했다. 설정 스님은 "30년 전 막고굴에 왔을 때에는 정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은 중국 정부의 문화유적 보존 열기를 느낄 수 있다"이라며 "한국은 문화 유산을 외치지 만 전통문화 보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노력을 한국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욕과 무지의 폐해의 현장에서

〈서유기〉의 화염산으로도 유명한 투르판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절감했다.

화염산을 넘어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베제크릭 석굴. '아름답게 장식된 집'이라는 의미의 석굴이지만 안에 들어서면 불상은 없고, 불화는 뜯겨나갔다. 그나마 잔존 불화는 진흙칠이 돼 있거나 불보살의 상호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석굴의 불상과 불화가 훼손된 것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도굴과 이슬람 교도들의 훼손이 주요 요인이다. 독일의 그룬베멜, 르륵, 일본의 오오타니, 러시아의 올젠버그, 영국의 스타인 등이 차례로 드나들며 벽화와 불상을 마구잡이로 절취했다. 오오타니의 경우 이 벽화들은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으나 일제 패망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베제크릭 석굴 벽화 4점이 소장돼 있다.

남아있는 벽화를 답사하니 불화가 매우 한국적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광배의 화염 문양과 측면을 보고 있는 보살의 상호 등은 한국의 불화와 비슷했다. 유근자 교수는 "베제크릭 석굴은 축조 석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토함산 석굴의 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탐욕과 무지의 폐해 현장에서 순례단은 예불을 올리고 참선을 했다. 이를 통해 선지식들의 구법 열정을 다시 되새겼다.

참선 마친 이후 설정 스님은 순례 대중에게 설법을 했다. 설법 도중 스님은 훼손된 불상에 복원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설정 스님은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절감했다. 서구 열강의 탐욕으로 벽화는 뜯겨지고 이슬람의 무지로 불화는 훼손됐다"면서 "집착과 탐욕의 신앙인과 일반인들을 우리는 깨닫게 해야 한다. 깨닫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더욱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우리는 길 위의 수행자"

순례단은 마지막 여정인 우루무치에서 천산 천지를 찾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7박 8일의 여정에서 순례단 스님들은 옛 선지식들의 구법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육천암 주지 정경 스님은 "서산 마애삼존불의 원류가 있다고 해서 답사에 참가했다. 이번 순례에서 이를 확인하고 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청암사 승가대학 도반들과 참석한 대전보훈병원 병당 주지 선명 스님은 "내 자신을 가다듬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모습과 시대는 다르지만 혜초, 현장 스님과 같은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원에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방에서 수행 중인 선우 스님은 길 위에 있는 것이 곧 수행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선우 스님은 "2004년 5대 적멸보궁을 도보 탁발 순례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길 위에 있는 것이 곧 스님의 삶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시의 결심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신성민 기자

인터뷰

"下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이번 실크로드 순례를 통해 불교의 옛 선지식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땅과 피, 열정을 쏟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후학들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 지도법사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이번 순례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교통이 현재 같이 발달하지 못하는 시기에 구법승들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행을 했고 이를 견딜 수 있던 것은 깨달음에 대한 열정과 중생 제도라는 서원 때문이었다는 게 설정 스님의 설명이다. 후학들에게는 이번 순례를 통해 구법승의 열정을 잘 보고 느껴 이를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후배 스님들과 여행하니 저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선사들이 걸었던 길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느꼈으면 합니다. 또한 나를 놓고 하심(下心)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수행자의 기본정신이고 중생을 위한 자세입니다."

설정 스님은 구법승의 정신이 현대인에

게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대인은 '편리'라는 나태함 속에 살고 있고 나태함은 이기심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쉬운 길을 가면 자신의 지혜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불교는 온전한 생명과 자유를 추구합니다. 구법승들은 그 정신을 순수하게 열정으로 투영시킨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구법 정신을 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충고가 이어졌다.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 정신이다. 투르판의 모래산인 명사산을 한달음에 올라갔던 스님에게도 그 충고는 깊이 다가왔다.

"인생의 성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망과 지혜, 용기를 두루 갖춰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인간의 삶은 행복과 불행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려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밝아집니다. 긍정이라는 자기최면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따라 달라진다는 '일체유심조'의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포교는 하나' 재발심합니다

前 포교원장 혜종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교육원이 앞서 진행한 티베트 순례에 지도법사로 참가했다. 그럼에도 실크로드 순례라는 고된 여정에 오를 것은 도반인 지도법사 설정 스님이 있어서다. 또한 서역으로 가는 구법승들의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이곳을 20년에 오려했는데 일이 생겨 신도들만 보내고 정작 나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후로는 인연이 안돼 가지 못하다가 이번 순례에 도반 설정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여한다고 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혜종 스님은 이번 여정을 통해 구법이

쉬운 일이 아니며, 고행의 가시밭길을 자처한 구법승들의 위법망구 정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다시 한번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님을 세삼 깨달았다고 했다. 다시 한 번 포교의 서원을 재발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고(告)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불교입니다. 이를 위해 구법승들은 노력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포교하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현대의 불사가 곧 문화재라는 정신을"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



조계종 종책특보단장이자 서울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은 지난 10년을 누구보다 바빠 살았다. 낙산사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화마로 전각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를 원만히 복원해 회향했다. 그러면서도 종책특보로서 소임을 꾸준히 살았다. 최근에는 고사 직전이었던 고찰 흥천사를 다시 매입해 도심 포교 거점 사찰로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다. 정념 스님이 바쁜 일정에도 순례에 참석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지만 불사에 대한 생각이 벌써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스님은 현대의 불사도 100, 200년 후에는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로 말을 마쳤다.

"불사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부터 주민들의 편의까지 도모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불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진행하는 불사가 100년 후에는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현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에게 필요합니다."